

## 주택대출 고정금리 연 9% 돌파... 변동금리도 '꿈틀'

# 서민 '이자고통' 커진다

### 금리 1%P 오를때 마다 연 2조 가계 이자부담 증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9%대를 넘어서면서 주택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이자고통'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도 최근 들어 꿈틀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금리 '뒤편질' - 단기금리 '꿈틀'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자금시장에서는 장·단기금리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세금리인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은 5월말 5.46%에서 한국은행이 유동성 옥죄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지난 23일에는 5.87%까지 치솟아 상승폭이 0.41%포인트에 달했다. 이후 내림세를 보이며 26일 5.73%까지 하락했다. 27일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0.03%포인트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 우려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신용등급 AAA급 3년물 기준) 수익률도 5월말

6.07%에서 지난 23일에는 6.50%까지 올라 금리변동폭(0.43%포인트)이 국고채보다 더 컸다.

이처럼 장기금리가 치솟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앞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채권을 사지 않는 것이다.

장기금리와 달리 단기금리는 계절음을 하다가 최근 상승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금리인 3개월짜리 양도성에 금중서(CD) 금리는 5월말 수준인 연 5.36%를 유지하다가 최근 0.01%포인트 올라 현재 5.37%를 기록 중이다. 단기금리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들이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단기성 자금을 머물면서 단기 유통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대출자 부담 가중될 듯 =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금중세를 보이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은행의 이번 주 초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연 7.55~9.05%로 지난 주 초에 비해 0.12%포인트 오르면서 최고금리가 9%를 돌파했다.

국민은행도 연 7.14~8.64%로 지난 달 6월에 비해 0.91%포인트 높아졌으며 대출금리 체계를 변경한 2005년 4월에 비해서는 최고 금리가 2.30%포인트나 상승했다. 고정금리로 1억원을 대출한 대출자의 경우 금리가 2.30%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부담은 230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CD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의 금리도 상승세를 재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3개월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는 6.13~7.63%

로 지난 주에 비해 0.01%포인트 높아졌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0.01%포인트 인상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월말 현재 226조6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전문가들 "금리 더 오른다" =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인플레이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진모 SK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은 유가와 환율수준이 이어진다면 3년물 국고채 금리는 7~8월경 6%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올 하반기에는 인플레이 압력은 완화하는 대신 경기둔화 압력은 심해져 금리가 하반기에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금속노조 내달 2일 파업

### 기차차 등 완성차 4개사 2시간 부분 파업 가능성... 지역경제 파장 우려

금속노조가 오는 7월 2일 산별 중앙교섭과 최고급 전면 재협상을 위한 2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기차차 광주공장 노조는 30일 내부 조율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광주지역경제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완성차 4개사 지부장 등 19개 지부장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27일 2008년 임단투 투쟁에 대한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직인원 14만1

천178명 가운데 12만7187명이 투표에 참석, 9만6천366명이 찬성표를 던져 모두 75.51%로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전국 240여개 사업장의 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금속노조는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기 위해 완성차 4개사와 대기업에 7월 4일까지 최종 시한을 줌으로써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속노조는 7월 2일 총파

업을 진행한 뒤 4~5일에는 확대간부 상경투쟁 등으로 총파업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8일 전체 조합원 4만4천757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가자 4만1천373명 가운데 3만24명(67%)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기차차와 쌍용차 지부도 각각 64%, 6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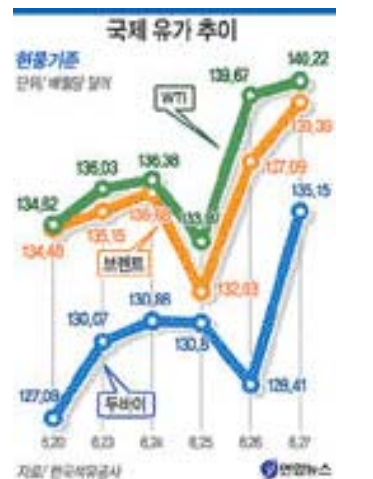
# 고유가... 무역수지도 적자

### 올 상반기 100억달러 적자... 11년만에 처음 '마이너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 전망치를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11년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어 국제유가도 당초 전망과 달리 급등세를 지속해 연간 전례로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반기 무역적자 = 29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1천989억2천339만 달러였고 같은 기간 수입은 2천95억2천33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06억9천694만 달러의 적자였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를 월별로 보면 1월 39억1천595만 달러 적자, 2월 13억1천257만 달러 적자, 3월 9억863만 달러 적자, 4월 2억1천39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다 5월 9억2천28만 달러의 흑자



를 냈지만 6월에 다시 적자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의 무역적자가 54억3천78만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는 불가피하다.

◇치솟는 유가가 무역적자 주범 =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유가의 상승세 때

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은 351억7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9% 늘어났다.

특히 수입물량은 줄어든다고는 수 수입액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올 1월 원유수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증가했지만 수입금액은 78.8% 늘어났고 2월에는 물량이 4.4% 감소했지만 금액은 60.7% 증가했으며 3월에도 물량은 9.5% 줄었고 금액은 42.9% 늘어났다.

4월에는 수입물량이 0.5% 증가했지만 수입금액은 57.0% 늘어났으며 5월에는 물량이 4.9% 줄었지만 금액은 57.9% 증가했다.

국제 유가상승으로 원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1월 88.86 달러, 2월 92.10 달러, 3월 93.08 달러, 4월 99.33 달러로 올라 5월에는 109.43 달러로 100 달러를 넘었다. /연합뉴스

## 1천원으로 살게 없어요

### 과자·음료값 대부분 올라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군것질거리 가격이 올해 초부터 잇따라 오르면서 1천원으로는 살게 없게 됐다. 과자·음료업체들이 올해 초부터 유제품, 밀가루 등 원재료가 인상을 반영, 일제히 가격을 올린데다 고급화 경향으로 고가 제품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편의점 체인 훼미리마트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제품은 상품군별로 1위부터 20위까지 정리한 결과 과자류의 경우 1천원 미만의 제품은 6개 뿐이었다.

포스틱(900원), 오징어집(700원), 자갈치스낵(700원), 양파링(900원), 바나나칩(700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대부분 1천원~1천500원선이였다. 그나마 1천원 미만 제품도 올해 2월경 100원씩 오른 것들이다.

5월 매출 1위 제품인 '포테토칩 짭짤한맛'과 2위인 '왕소라스낵'은 각각 1천원, 3위인 '스워치'와 4위인 '포카칩 양파맛'은 1천200원씩이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군것질거리를 살 때 '심리적 सह안성'으로 여겨지던 500원짜리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음료수도 마찬가지로 매출 상위 20개 품목 중 저가형 캔커피인 '레쓰비'(185ml, 600원)와 생수 제품 등 6가지 외에는 모두 1천원 이상이었다. /연합뉴스



비치웨어 패션쇼

광주신세계는 지난 28일 지하 1층 패션스트리트에서 비치웨어 패션쇼와 고객이 참여하는 즉석시전 촬영행사를 가졌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올 여름 유행할 다양한 비치웨어들이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 현대·기아차 가격 올린다

### 원자재값 상승 따라 인상 폭·시기 검토 중

현대·기아차가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차값을 올리기로 잠정 결론내고 차종별 인상폭과 시기 등 세부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현대·기아차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차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9일 "내달 중순 상반기 결산지표가 나오면 가격문제를 검토한 뒤 그달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괄적으로 올리겠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고 개략적인 방침만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출비중이 큰 현대·기아차는 해외에서 환율상승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쉽사리 올리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해온 게 사실이다. 가격인상 카드를 선포할까 꺼내지 못한 채 생산성을 높이고 차량 설계단계에서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여 원자재값 상승 충격을 흡수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올해들어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손실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인상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미래에셋 자산운용 상반기 7조원 손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증시의 조정 한파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주식형펀드에서 최대 수조원대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열풍의 주역으로 수탁고 1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반기 추정 평가손실이 7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이 국내 47개 자산운용사들이 운용 중인 공모형 주식형펀드의 상반기 순자산총액 변동과 순환펀드(순유입 자금)를 분석해 2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운용사 중 주식형펀드 평가손실이 가장 큰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4조3천258억원,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2조8천517억원 등 총 7조1천775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 증권사 실적 '곤두박질' 5월 약세장 여파 영업이익 50% ↓

국내 증권사들의 5월 실적도 주식시장 약세 여파 등으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월 실적을 공개한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9개 주요 증권사의 5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9.76%, 46.89%나 줄었다.

조사 대상 9개 증권사가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감소를 나타낸 가운데 현대증권이 영업이익 81%, 당기순이익 79% 감소로 실적이 가장 부진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현대증권에 이어 대신증권(-75.70%), 동양증권(-62.10%), 대우증권(-60.60%), 한양증권(-52.40%), 우리투자증권(-48.20%), 삼성증권(-32.40%), 교보증권(-22.90%), 미래에셋증권(-12.52%) 등 순으로 부진했다. /연합뉴스

##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물가안정에 정책 최우선 뒀어"

한경연 제기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 만큼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뒀어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한경연은 29일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수입물가 상승영향으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5.6% 증가율을 보여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하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5.2%)에 비해 크게 낮을 3.3%에 그치고, 연간 성장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5.8%였으나 2분기에는 4.6%로 낮아졌고, 3,4분기에는 각각 3.7%와 3.0%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5.0%였다.

한경연은 "정책당국은 환율의 안정적 운용, 정책금리 동결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 로도복권 (제29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차 수
3   7   8   18   20   42	45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450,585,200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393,575	39
3	5개 숫자 일치 1,379,258	1,227
4	4개 숫자 일치 54,144	62,513
5	3개 숫자 일치 5,000	1,029,643

### 팝콘복권 (제114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3조 452664
2	1억	5조 890953
		3조 278362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90804
4	1백만	각조 5977
		06
5	50만	29
		90
6	2천	7
		8
7	1천	6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원시스템	경리사무원 경력직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6/30	062-384-1161
우양물산	[경리직/생산직]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1	062-603-0061
ING생명본세	[본사직영/상담원]연급주기연계출시-35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2	02-3452-2612
드로엘	금융제품 도면(2D,3D)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2	062-710-1202
신영하이테크	생산 관리 및 CMM 측정 담당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3	062-949-8800
한진기공	[기계설계직/NC밀링기사/관리직]정규직	고졸/경력1년	2200~2400	07/04	062-953-1642
롯데우유	롯데우유 광주지점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7/04	062-571-7003
히미시네마	회계사무 (더존 사용, 결산가능자)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7/04	062-261-5398
메트라이프생명	2008년 하반기 경력직 FSR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4	062-228-1137
수성종합건설	현장 공무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3800~4000	07/04	010-9036-4634
신우산업	건축기계설비,환경,공조/공무/경력 경력직	대졸/경력2년	2800~3000	07/06	062-972-1865
동부회계 광주 고객서비스팀	동부회계 직영 TC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62-220-8500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2008년 신입 및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653-5828
국국제이엔티	전기, 전자, 2차전지(연속전지)를 생산, 연구개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973-599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